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3년 1월 8일 (화)

발행인 이종헌 편집 김종성

주 소 (705-803) 대구 남구 대명동 447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1쪽

II. 내용

1. 생명의 신비 (2) 피부 - 정계헌 2쪽

2. Victor's Bible Journey (44) 기드온의 300 용사 - 이종헌 역 5쪽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30) 비스가 산의 절망? - 김무현 8쪽

4. Creation Article 성경 역사가 왜 중요한가 - 이종헌 역 11쪽

인 사 말



급격하게 변해가는 소셜 네트워크와 불안정해져 가는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앙 등은 아마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로 가는 전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도 점점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게 3가지 루트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두 번째 공격 루트는 문화를 타고 도덕적 회색지대를 확장하면서 교회를 점점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신론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교육, 언론, 과학 등 사상과 학문세계를 통하여 세상을 무신론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적 세계관인 진화론은 과학의 옷을 걸치고 인간의 기원과 본질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을 철저하게 물질주의로 환원하고, 이를 교육하여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공격루트는 전문가가 아니면 대응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므로 창조과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2013년에도 인간적인 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전시관장 권 진 혁 올림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2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월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이은일 회장님과 함께 2013년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 샤브향 수성점

주소: 대구 동구 신천4동 304-7

문의: ☎ 053-763-5000



피부 (Skin)

이번 호에서는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피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피부가 하는 설계된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부 조직과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압력이나 기계적인 접촉이나 춥고 더운 것들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방어작용도 있는데 각층이라고 하는 피부의 제일 바깥층은 수분이 조직 내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조직액이 마르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조직액이 흘러 나가는 것과 미생물에 의한 감염입니다.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태양 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적당한량의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피부는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피부아래층에 중요한 영양소 중의 하나인 지방을 저장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면 이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피부는 또한 체온 조절을 해주고 주위환경을 접할 때 오는 자극들을 감지하는 감각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피부 안팎에 있어야 합니다. 피부에는 땀샘과 기름샘, 그리고 젖샘이 있습니다.

우선 땀샘과 기름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땀샘은 체온을 조절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평상시 체온은 36.5℃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도 올라간 것도 아닌 40℃에서 우리는 벌써 혼수상태가 되고, 42℃면 완전히 사망하게 됩니다. 아래로는 35℃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체온계는 눈금이 35-42℃까지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온도에 예민한 정교한 화학공장 같아서 평상시의 체온보다 불과 1℃만 올라가도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는 온몸의 피부에 있는 땀샘을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땀을 배설하는 땀샘의 분포는 몸의 부위에 따라 땀샘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 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땀샘은 피부 1 cm² 당 손·발바닥에는 400-600개, 얼굴에는 200개, 팔·가슴에 180개, 다리에는 90개, 안검과 내이에는 아주 적습니다. 땀을 많이 분비하는 큰땀샘에는 첩모선, 귀지선, 액와선, 유륜선, 항문주위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샘이 아주 없는 곳도 있는데 바로 입술, 유두 즉, 젖꼭지 등에 없고, 또 이, 고막, 손·발톱 밑, 남자의 음경, 여성의 소·대음순의 내면 등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분포 양상이 다를까요?

손과 발은 평생토록 무엇인가 굳게 잡아야 할 경우와, 힘을 다해 뛰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말립니다. 그래서 그 큰 힘들을 감당해야 하는 손·발바닥에는 다른 곳보다 많은 땀샘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부위처럼 골고루 100-200개 정도만 있다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피부는 큰일을 한번만 겪으면 다시 못 쓰는 일회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발바닥에서의 땀구멍은 사람들이 지문을 찍었을 때 지문의 선을 따라 있습니다. 지문마다 겉보기도 다르지만, 지문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그 사람의 땀구멍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입구가 온전한 것, 상한 모양 등이 자세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문만으로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입술과 젖꼭지에 땀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분명히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젖꼭지로 땀을 내면 아기가 땀을 먹게 되므로 입술과 젖꼭지에는 땀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젖꼭지 주변의 불그스레한 부분 즉, 유륜에는 큰 땀샘이 있어서 젖꼭지에서 나는 열까지 해소시켜 주어 젖꼭지를 이룬 세포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런 현상들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빨 때 땀도 함께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에 있는 피지선이라고도 부르는 기름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름샘은 털이 있는 모든 부위에 있습니다. 기름샘 자체가 피부 속에서 아예 털과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털을 따라 피부 밖으로 나와 주변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병균의 침입도 막고, 마찰력도 감소시키는 일을 합니다.

노인이 되면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름분비가 줄어들어 가려움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얼핏 보아 큰 병변이 없으면 집에서 흔히 쓰는 로션을 바르면 금방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기름기가 보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털과는 관계없이 특별히 입술(lips), 젖꼭지(nipples), 유륜(areola), 항문주위, 눈꺼풀, 여성의 소음순(labia minora) 등에는 기름샘이 있어서 마찰력을 감소시켜 주어 피부의 손상을 막아 줍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샘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손바닥·발바닥과 손가락·발가락의 마지막 마디의 등과 옆, 그리고 손톱 및 발톱 밑 등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위에서 말한 땀샘과 상보적 기능을 가지며 절묘하게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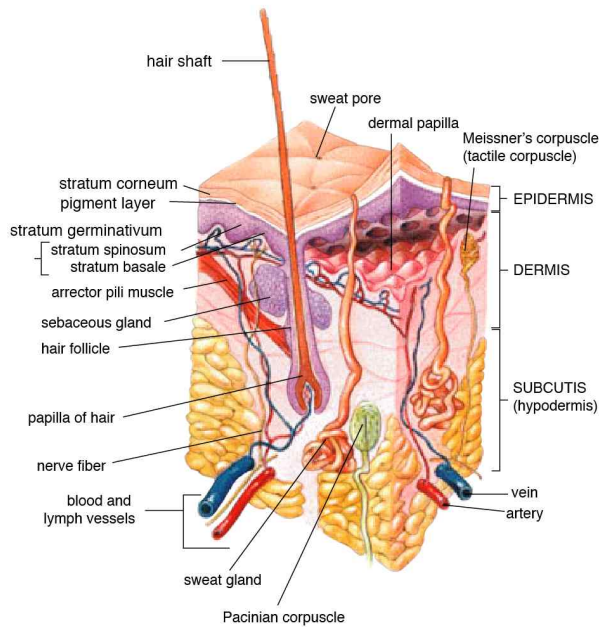


그림 1. 사람 피부의 단면그림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weat_gland

손과 발은 과중한 일을 많이 감당하잖아요? 긴장하여 힘든 일, 때로 생명을 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손과 발로 가는 동맥에 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손·발바닥에서 나는 열을 내보내려고 땀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까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미끄러지겠지요.

사람이 물건을 확실하게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손가락 마지막 마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디에는 등과 옆에도 기름샘이 없습니다. 손·발톱 밑에는 땀샘이나 기름샘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손·발톱 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부에 있는 땀샘과 기름샘의 분포만 보더라도 놀라운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행착오적으로 진화한 결과일까요? 창조주의 치밀한 설계일까요?

[기도]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 피부에 땀샘과 기름샘 등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운동하고 난 후에 땀을 흘릴 때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설계와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창조**

기드온의 300 용사

(Gideon's Three Hundred Men

- 사사기 (Judges)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승리를 해 왔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인들 사이에 거주했으며 그들의 많은 이방인 방식을 흡수했다. 그들은 수년이 지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으며,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남자 혹은 여자를 일으켜서 사사로서 나라를 이끌게 했다. 그러한 사람 중에 기드온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치른 한 커다란 전쟁은 300명의 헌신된 군인이 필요했다.



출처: <http://www.encountersnetwork.com>

중간 파수(watch, 불침번)

위험이 있을 때 군대와 도시와 심지어 가정에서도 밤새도록 파수를 켜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파수는 네 시간 주기의 삼교대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파수는 파수의 시작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였다. 중간 파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다. 아침 파수는 오전 2시에 시작하여 오전 6시에 끝났다.

첫 번째 파수는 일몰에서 시작하고 아침 파수는 일출에서 끝났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공격한 것은 중간 파수의 시작 때(저녁 10시경)였다. 군대는 어두워진 이후에 거의 싸우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었다.

기드온의 나팔

기드온 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깜빡이는 횃불을 드러냄으로써 미디안 군대를 놀라게 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분 뿔나팔은 **소팔**이라 부르는 것으로, “나팔”을 의미한다. **소팔**은 통상적으로 모양이 굽은 짐승의 뿔로 만든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음계밖에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소리가 맑고 날카롭다. **소팔**은 주로 전쟁, 반역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거대한 향연을 알리는 데에 사용한다.

도자기와 항아리

기드온과 300 용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려서 수백개의 불타는 횃불을 드러냄으로써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한밤중에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는 매우 큰 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항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든 것인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모든 도자기를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거칠고 물골스러웠다. 그러나 기드온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도자가 물레에서 성형이 되었다. 이 중요한 발명은 도자가 매끄럽고 대칭의 모양이 되게 했다. 심지어는 이음매를 감춰주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도록 설계된 연장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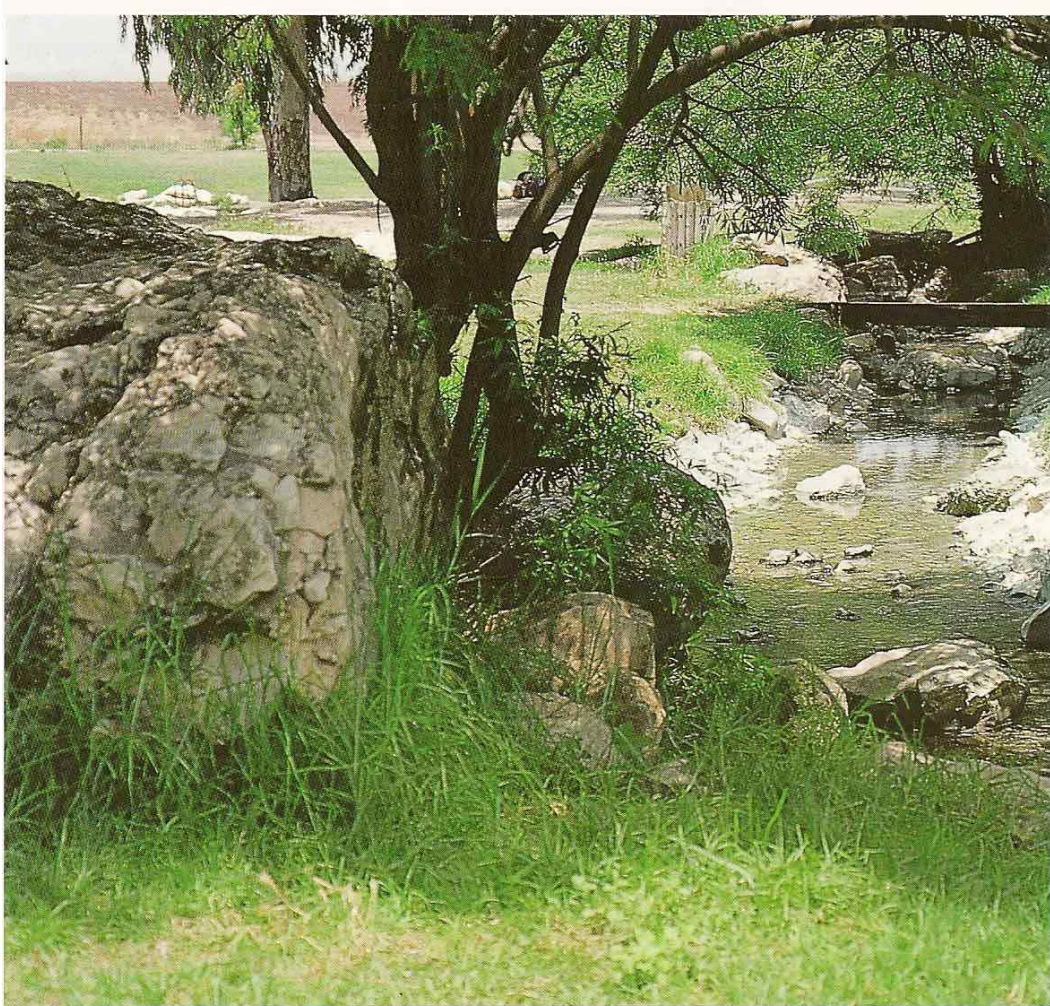
<이 항아리는 아마도 기드온이 횃불을 덮기 위해 사용한 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것은 므깃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BC 1550-1479의 것이다. 항아리에 칠한 것 중에 새가 있다.>

기드온의 군대가 사용한 항아리는 아마도 진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 중 가장 통상적인 것이었으며 값이 가장 싼다. 용기의 모양을 갖추면 몇일 동안 말린 후 가마라고 부르는 화덕에서 열을 가한다. 이렇게 하면 도자기가 더 강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이 깨지기 쉽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햇불

한밤중에 갑자기 300개의 밝은 햇불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랐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햇불을 유효한 전쟁무기로 사용하여, 미디안 군대를 흩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

성경 시대에 햇불은 또한 기름을 태우는 작은 등불이 충분한 빛을 주지 못할 때 등불로써 사용되기도 했다.



〈하룻의 샘, 여기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물을 마셨다(삿 7:1-6).〉 **창조**

비스가 산(Mt. Pisgah)의 절망 = 우리의 희망?

4) 비스가 산의 절망 = 우리의 희망?

신명기 3:25-28은 구약 전체 중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80세의 늙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가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세가,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죽음을 준비하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25-28)

'Let me, I pray, cross over and see the fair land that is beyond the Jordan, that good hill country and Lebanon.'

But the LORD was angry with me on your account, and would not listen to me; and the LORD said to me, 'Enough! Speak to Me no more of this matter.'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ift up your eyes to the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and see it with your eyes, for you shall not cross over this Jordan.'

'But charge Joshua and encourage him and strengthen him, for he shall go across at the head of this people, and he will give them as an inheritance the land which you will see.' - Deuteronomy 3:25-28, NASB

모세는 “나로 하여금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을 한 번 만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만 보라. 하지만 네가 요단 강을 건너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천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철저하고도 어찌 보면 지나치도록 냉정하게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셨을까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동족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며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을 냈기 때문일까요? 그 물 내는 일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끔 한 그 행동의 대가가 그토록 컸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맡기신 자에게 더 찾으시고, 주신 달란트와 소명에 상응하는 심판 (weighted judgement)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출애굽 초기에 이미 르비딴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비슷한 기사를 상기시키며,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반석을 침으로 (즉 십자가에 못박으므로), 거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생명수가 나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4)

and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were drinking from a spiritual rock which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 - 1 Corinthians 10:4, NASB

And they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supernaturally given) drink. For they drank from a spiritual Rock which followed them [produced by the sole power of God Himself without natural instrumentality], and the Rock was Christ. - 1 Cor. 10:4, AMP

즉,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말기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은 한번 십자가에 못박은 그리스도를 다시 못박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함축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다시 반석을 친 모세에게 내린 엄한 징계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크리스천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동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blescripture.net>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며 대표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인 구원과 영생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모세처럼, 또는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Joshua)는 헬라어 예수(Jesus)와 똑같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즉, 예수께서 언약의 완성과 마침이 되셔야 하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몽학 선생으로서 바로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 즉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없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인한 은혜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 정상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재적 약속의 땅(physical promised land)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게 펼치시는 구속의 청사진 가운데에서의 예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구원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성경 역사가 왜 중요한가 (Why Bible History Matters)

우주의 역사책

성경은 시, 자서전, 로맨스, 교훈과 신학 등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66권의 책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1,500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저자, 즉 왕, 장군, 어부, 선지자, 학자, 세리 및 의사 등이 썼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로 향해가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우주의 실제 **역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 테마는 하일스게쉬히테(Heilsgeschichte,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독일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써(고전 15:46)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시기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정보**로 가득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전적으로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 우리 기독교 믿음은 (불교나 힌두교 등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사실에 관심을 둡니다. ... 에덴동산 ... 대홍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 바벨탑 ... 아브라함 ... 우리 주님께 관한 사실들 ...”

역사가 문제가 된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리의 근거를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둔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만에 의한 칭의라는 지극히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할레라는 행위(창 17장) **이전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믿음(창 15:6)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테전서 2:11-14에서 바울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임을 지적하면서 여자들의 역할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창세기 모형(창 14)에 근거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족의 제사장직보다 앞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히, 그들의 선조인 레위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공물을 드린 것에 기인한다.

역사와 율법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에 관한 세속적인 공격들을 반박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다; 대홍수 이후에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하에서는 모세 시대에 금지했던 동물들도 먹을 수 있다.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것을 먹으면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시는 각각의 다른 단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모세 시대의 율법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한 시기를 위한 것으로써,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장차 메시야가 나올 민족으로 구별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야 민족이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율법이 반복적으로 **의식적인 구별**을 갖고 있었다: 혼합된 직물로 옷을 만들면 안되며(레 19:19); 바다 생물이 밭을 가졌다는 것이 바다와 육지의 의식적 경계를 어겼다는 이유로 랍스터를 먹으면 안된다(레 11:9-12). 그리고 그들은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엡 2:14).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갈 3:28, 골 3:11). 따라서 그러한 구별되는 율법이 들어설 여지가 더 이상 없으며, 이제는 낡은 것이 되었다(히 8:13). 그리고 이제는 죄를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히 10장).

역사적인 상세

성경에 있어서 역사가 매우 강조된다는 예로써, 의사이며 위대한 역사가인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눅 3:1-2).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는 세상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창세기 5장과 11장에서는 창조주간의 제6일에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유대민족 혹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를, 그 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출생일 사이의 년수를 완벽히 가지고 있다. 보통의 용법으로는 자식이 아버지의 생일에 태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각 세대의 시간 배열에 몇 개월이 추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두 시기 사이에 최대한 20년이 추가될 것이며, 이에 따르면 창조/아담으로부터 대홍수까지 1656년, 그리고 대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353년이 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학자들이 계산한 창조의 날짜는 대략 BC 4000년으로써 모두 매우 유사한 계산을 한다.

논리적 추론에 의한 또 다른 역사

더욱이, 성경의 가르침은 명시적인 진술에 제한 받지 않고, 무엇이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묻는 다른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창세기를 통하여, 그 답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해 낼 수 있다.

타락의 시기

인류의 타락은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듯이, 성경은 **묵시적으로** 그 시기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6일에 창조를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매우 좋았다”고 하셨음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창 1:31). 따라서 그때까지는 사탄도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뒤따른다. 이것은 수백만 년이라는 ‘과학’과 타협하기 위한 모든 다양한 성경의 곡예들(예를 들면, 간격이론, 날-시대이론, 유신론적 진화론, 구조틀 가설)을 배제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다는 말이 되고,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과 맞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7일을 복주셨다(창 2:3). 이 날에 죄나 저주가 있다는 힌트가 조금도 없다. 따라서 인류의 타락은 창조 주간 이후에 발생했다.

그러나 얼마나 뒤의 일인가? 첫 번째 사람들에 관해 드러난 역사로부터 추론해 보면 그리 오래지 않다. 아담과 하와는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창 1:28), 정의에 의하면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매우 좋게” 창조되었는데, 이는 육체적으로 완벽한 몸을 의미하므로 최소한 첫 번째 생리 주기 안에 즉시 임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아이(가인)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임신했고,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죄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의 타락은 아마도 창조주간 이후 기껏해야 3 내지 4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을 것이다.

추론: 우리는 또한 사탄의 타락을 복받은 제7일과 인류의 타락 사이의 매우 좁은 창으로 제한할 수 있다.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 때 탈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지시하셨다. 노아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얼마만큼의 수명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 6:3로부터 120년이라는 답을 한다. 사실상 이것은 인간의 수명과 관계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1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방주에 탄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을 대홍수가 쓸어버리기 전까지 모든 인류에게 남아있던 시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답을 주지는 않는다: 이 120년의 시작점은 방주를 지은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6:4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짝을 지을 때부터이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는 노아가 세 아들과 자부들을 기다려야 했다(창 6:14-18). 이것은 노아가 그때까지는 아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결혼할 만큼 충분히 장성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Noah was five hundred years old, and Noah became the father of Shem, Ham, and Japheth)”(창 5:32). 창세기 7:6은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사건 이후 100년이 지난 뒤다.

따라서 그들이 결혼하기에 충분한 나이를 30세라고 한다면, 대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짓는데 70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결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창세기 5:32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성경의 진술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해야만 하는데, 종종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들 세명이 노아가 500세 때 태어난 세 쌍둥이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 때 그가 100세였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창 11:10). 따라서 대홍수가 왔을 때 셈은 98세였으므로, 그는 노아가 502세 때 태어났다. 함은 가장 어린 것으로 언급되므로(창 9:24), 야벳이 가장 나이가 많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세기 5:32은 야벳 혼자만 태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창세기 11:26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테라는 칠십 세에(And Terah lived seventy years)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나 창세기 11:32은 테라의 수명이 205세였다고 말하며, 창세기 12:4은 **테라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테라는 130세였음이 분명하다.

결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몇 권의 책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확장해서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비추어보아 성경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There are no falsehoods in the Bible in the light of history.)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